

社說

내년 예산심의 꼼꼼히 살펴야

포천시는 2008년도 市 예산 규모를 3천497억원을 편성해 포천시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이같은 금액은 전년도 대비 274억3천9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요즘 시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수치 악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로 그대로 지방세 수입감소로 이어져 포천시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름값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민생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 등으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는 그동안 거대한 프로젝트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박운국 전 포천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그 방향을 잃지 않을 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천시 관계자가 2008년도 국내경기는 완만한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낙관할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포천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국도 43호선이나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교통난이다. 도로건설이나 혼잡구간 개선사업들은 포천시가 가장 신경써야 할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

포천시는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포천시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포천시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와 더불어 교육문제다. 포천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공직사회 간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광역권에 거주한다. 이들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다. 포천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 가능하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이나 교육경비를 대폭 증액해 볼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을 교통나 해소나 교육문제에 더 배정하기 위해서는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거나 삭감해야 한다.

시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3천497억원이라는 큰 규모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겠지만 포천시의회 예산심의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포천시가 장기 미래비전을 가지고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2008년도 예산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 심의하는 시의회는 짧은 시간에 전문 보좌관이 없는 가운데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위해 국회의원 출마”

박운국 시장 12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혀

박운국 포천시장은 12일 오전 11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거나, 대기업, 대학교 유치 등 대형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법에 발이 묶여 시장직 수행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천군과 포천시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과 기타 개발법 등 거미줄 같은 규제 속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도록 헌신하겠다”면서 “150만 평 신도시개발사업과 410만평 예코 디자인 시티 MOU체결, 포천시 전철유치기본계획 확정 등 대형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최선의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더 큰 틀에서 연천과 포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장직에 오래앉아 있는 것보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한”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일문일담 내용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당선에 대해 마지막까지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또 두 번에 걸쳐 한나라당 공천을



박운국 포천시장은 12일 오전 11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천을 못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시장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정부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항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도록 했다.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2년도 안된 시점에서 국회의원 출마함으로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시민세금 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포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포천시에 돈이 없어 고생이 많았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시정을 이끌어 온 것은 아니다. 포천시 부채 620억원 중 재임하는 동안 230억원을 상환했다.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들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돈 1억이나 2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기에 연연하는 공직자가 아니다. 이 도시가 속도감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특별기고

국민의 소박한 꿈



이 중희
행정부 통일교육위원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가슴 부풀어 맞이했던 정해년의 끝자락 12월 중순, 대통령 선거를 며칠 남기고 저는 깊은 잠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체험적인 경륜과 능력으로 침체되었던 서민 경제가 살아나,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식당, 거리의 접포 사장님들이 오래간만에 하루의 매상을 은행에 예금시키려 하며 작은 미소가 피어나는 시기인가 봅니다.

세계정상들이모인 국제회의장에서 수려한 한복을 입은 당신은 어려운관계의 정상들까지도 서로 손을 맞잡게 하여 세계의 환호를 불러 일으켜 축하를 받으며, 아시아의정상을 특히 일본수상과 중국수상이 당

르고 국군을 찌르던 나쁜 무리들에게는 엄벌을 가하시어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 시키시더군요.

당신께서는 수많은 경호원에 둘러싸여 캐디락과 리무진으로 대로를 질주하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어 일과시간이 후에는 조용히 경호원 한두명만 대동하시고 청와대를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택시 기사에게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 번두리나 지방도시의 번두리에 내려서 나라에서도 못하는, 부모도 버린 장애인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혀며, 번까지 받아내며 그들을 돌보아 준다는 짧은 목사님 부부의 지방 신문 기사를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방에서 함께 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청와대로 돌아와서 그들의 겨울을 보내며, 눈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줄 당신은 누구 입니까”

신을 부러워하며 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수뇌들은 당신의 위업과 정직함과 소탈함에 반해서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북한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어 재벌과 나라에 감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과시간에는 맑고 고운 한복두루마기를 받쳐 입으시고 낭랑한 목소리로 연두교사나 대국민담화를 읽기도 하시고, 여류이면 하이얀 모시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세계각국 귀빈들을 환한 웃음으로 의연히 맞으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권력이 아닌 권위와 정의의 검소함과 청렴함에 바르지 못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당신이 두렵고 부끄러워 모든 공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의 당신은 국민의 생명과 자원을 무척 소중히 여기시는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줄 당신은 누구 입니까.

우리나라 재벌들과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숙소를 자매결연시켜 그들을 돕게해서 재벌들은 보람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서 좋아하고 불우이웃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어 재벌과 나라에 감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과시간에는 맑고 고운 한복두루마기를 받쳐 입으시고 낭랑한 목소리로 연두교사나 대국민담화를 읽기도 하시고, 여류이면 하이얀 모시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세계각국 귀빈들을 환한 웃음으로 의연히 맞으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권력이 아닌 권위와 정의의 검소함과 청렴함에 바르지 못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당신이 두렵고 부끄러워 모든 공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의 당신은 국민의 생명과 자원을 무척 소중히 여기시는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줄 당신은 누구 입니까.

국립수목원-대구대 연구협력 체결

산림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활용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종서)과 대구대학교(총장 이용두)는 12월 18일(화) 대구대학교에서 산림환경교육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식 수행사를 가졌다.

국립수목원은 국내에서 산림환경교육연구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1999년 5월 24일 개원했다.

산림환경에 관한 현장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림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림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해 이 분야 전문교육강사(산림환경교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국내외 식물원과 수목원 및 관련연구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연계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대구맹아하원을 모체로 1956년 5월 1일 설립되었으며,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내용과 전문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국내

에서는 최초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에 교육과 복지의 길을 연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전문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협력으로 산림환경교육연구 분야의 급진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기반 구축에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되며, 새롭게 개발되는 교육기술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001호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轉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강을 실천합니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10일 ~ 12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7.12.10 포천신문 제397호 발행
2007.12.20 포천신문 제398호 발행
2008. 1. 1 포천신문 제399호 발행예정